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운동주 80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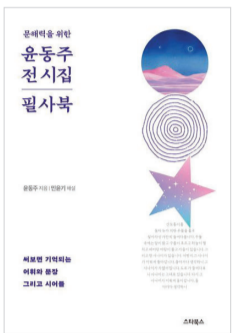
씨보면서 기억 '필사북' 출간
 올해 '동주문학상' 10주년 맞물려
 시산맥, 간담회·심층 기획 계획도
 日 도지사대학 명예박사 수여키로



되돌아본 운동주의 삶과 시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계기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한국 문학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 독자들을 향해서도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올해는 문학사적으로 의미있는 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민족시인 운동주 시인의 80주기가 되는 해다. 해방 80년이라는 벅찬 감격과 희망이면에 운동주 시인의 요절이라는 문학사적 큰 상실이 연계돼 있다.



80주기를 앞두고 운동주 시집 필사북이 출간되고, 시인의 삶과 문학 정신을 되새기는 간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또한 시인이 유학했던 일본 도지사 대학은 지난해 12월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하는 등 국내 안팎에서 운동주를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은 운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조국 해방을 열망하며 남겨두지 않고 28세라는 푸른 나이를 생을 마감했다. 강제로 투여한 생체실험 주사가 시인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운동주 시인은 북한도 용정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 일대는 구한말 독립투사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인 곳이다. 이와 맞물려 근대 민족교육도 활발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명동초학교, 광명중학교를 거쳐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릿쿄대에 입학하고 이후 도지사대학으로 옮긴다.

그러나 운동주 시인은 1943년 7월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고종사촌 송몽규는 운동주보다 4일 전인 7월 10일에 불참했다. 내향적이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운동주가 붙잡힌 것은 사상범이라는 이유였다.

송몽규의 '운동주 평전'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중심인물은 송몽규이고 운동주가 그에 동조했고, 이 사건으로 검사국(요즘의 검찰청)에 송국된 사람은 송몽규, 운동주, 고희옥 3인"이었다는 사건의 전모와 경찰 수사 종결의 결과가 밝혀졌다."

이에 앞서 운동주는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을 계기로 민족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독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것이다.

운동주가 옥사했던 후쿠오카 형무소는 현재 '후쿠오카 구치소'로 바뀌었다. 구치소 말지 않은 곳에 해변이 있다고 한다. 밤이면 귀가를 적시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시인은 밤새 조국의 독립을 희원했을 것이다.

광주일보와 동주문학상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계간 '시산맥'은 올해 문학상 10회째를 맞아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간담회와 심층 기획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운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둔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서울 운동주문학관. <광주일보 자료>



중국 용정 명동촌에 있는 운동주 시인의 생가.

동주문학상은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이후 2019년부터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면서 운동주의 민족정신과 시혼을 널리 알리고 있다.

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10년째 문학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운동주 시인이 지향했던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최근 발간된 운동주 시집 필사 북은 시를 옮겨 적으며 의미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민운기 시인이 해설을 맡은 '문해력을 위한 운동주 시집 필사 북' (스타

북스)은 어휘와 문장을 통해서 시인을 만날 수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시집 표기는 가능한 현대에 표기법을 따르면서 읽기에 지장이 없는 한 당시의 표기법 그대로를 준용했다. "원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으며, '얼굴/얼굴' '코스모스/코스모스' 등 발간 연도에 따라 다르게 실린 몇몇 단어는 그 변화와 달을 수 있도록 당시에 발간된 대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시인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운동주가 다녔던 도지사대는 학장단 회의를 열어 운동주 시인에 대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875년 설립 이후 도지사대가 고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한 결정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재학 중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연남



'뿌리 깊은 문화 파워, K-헤리티지' '맛과 멋 함께, 남도유람' 화순 11경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2월호가 출간됐다. 2월호가 준비한 특징은 '뿌리 깊은 문화 파워, K-헤리티지'다.

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정이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재화(財貨) 개념의 '문화재' 명칭 또한 유산(Heritage) 개념의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된다. 도시를 넘어 한국 브랜드로 사랑받는 국가유산과 아는 만큼 가치로워지는 광주·전남 문화유산들을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보성에서 '한달 살기'를 하며 작품활동을 한 만화가 윤태호 작가다. "내 인프라는 내 자선이었다." 프로그래머 입단에 실패한 고졸 청년 '장그래'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미생'의 생생한 직장생활 묘사와 통찰을 담은 대사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윤태호 작가는 '미생' 시즌1, 2를 12년 만에 완결한데 이어 시즌3 연재에 나선다. 평행 우주에 사는 '장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의 노마드(Nomad)적인 도전과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양림동 근대사적 열 이강하 미술관이다. 광주 남구 양림동 거리를 걷다 보면 현대적 외관이 돋보이는 이강하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8년 광주 남구 최초의 1층 공립미술관으로 문을 연 이 곳은 '양림동 화가 이자' '무등산 화가'로 잘 알려진 서양화가 고 이강하 화백의 예술혼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500여 점의 컬렉션과 짜임새 있는 기획력으로 문화광주의 명소로 자리잡은 이강하 미술관을 소개한다.

찬바람 따라 떠나는 남도 겨울 맛기행도 잊을거리다. '맛의 고장' 남도에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달큰한 해산물이 풍성하다. 청정 바다에서만 자라는 장흥 매생이와 자연산 굴 구이, 바다 향을 가득 머금은 쫄깃한 벌교 꼬막, 비싼 몸값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여수 새조개까지 남도의 바다로 맛기행을 떠나본다.

'맛과 멋 함께, 남도유람'은 봄으로 가는 길목, 화순으로 향한다.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화순군이 최근 지역 대표관광지를 '11경(景)'으로 확대했다. 기존 '화순 8경'에 쌍봉사와 화순꽃강길 음악분수&개미산전망대, 환산정 등 3경을 추가했다. 화순의 힐링 숲길과 생동하는 역사 문화를 찾아 길을 나선다. 화순 대표상품을 꼽으면 '화순이 오란다'와 블루베리·복숭아 과일집을 맛보는 건 덤이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과의 인터뷰와 올 한해 광주·전남 관객들을 기다리는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도 소개한다. 이외에 '호남의 누정' 대나무 숲은 선비의 절개와 효심 깃든 정자 광주 균산정, '해와문화기행' 천재 예술가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 소식도 볼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현대사회 '관계'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

한동훈 개인전, 28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난해하지만 미소를 짓게 하는 그림이 있다. 유머러스하지만 가볍지 않은 의미를 담은 그림이 그려진다.

한동훈 작품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다.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인 전시는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이다.

전시 주제 'Relation-관계'는 삶의 속내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사유하게 한다.

인간은 일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산다. 일차적으로 가정뿐 아니라 친구, 학교, 직장 등 관계의 범주는 넓다. 어른이 되면서는 관계의 양상 또한 중층적이고 복잡하다.

사전적 의미의 '관계'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번 전시 주제가 중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뜻이 있고 내재된 다른 뜻이 있는데, 외연과 안의 의미가 서로 연계된다.

전시된 그림은 디즈니 속 캐릭터를 형상화했다.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은 부담 없이 다가온다. 반대로물은 인간의 느낌을 많이 닮아 있어, 인간으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서로 연결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 익숙함은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작가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디즈니 캐릭터를



'관계'

'자본주의'의 한 단면으로 상징해 상상력을 풀어냈다. 풍자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관계 이면에 드리워진 것됨,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 작가는 "디즈니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 양상을 풍자적으로 담았다"며 "한편으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디즈니라는 캐릭터를 빗대 '관계'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작가는 조선대 미술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어동미술제 수상작가전, 서울 아트쇼 등 다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조대 회화학부에 출강중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브루탈리스트'



'정들이'



'두 사람'

예술세계·역사·로맨스...영화 통해 현실의 삶 고민

정들이 등 12~14일 광주극장 개봉

14세 가족소년을 휩쓴 1987년 격랑부터 노인들의 황혼 로맨스를 그린 작품까지...

시놉시스가 흥미로운 영화 세 편이 오는 12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차례로 개봉한다.

먼저 12일 선보이는 '브루탈리스트'는 올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감독상 등을 석권한 작품이다. 20세기 초 모더니즘 건축계보를 이은 브루탈리즘에 대한 영화로, 혁신적인 건축 양식에 매료된 예술가의 삶을 극화한다.

전쟁 상흔을 뒤로한 채 미국에 정착한 건축가 라즐로 토스(에드리언 브로디 분)는 각박한 삶 속에

서 전쟁 트라우마를 잊어 간다.

어느 날 그의 천재성을 알아챈 사업가 해리스(가이 피어스)이 사업을 제안하자, 노출 콘크리트로 인해 요새처럼 보이는 '브루탈리즘 건축'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1987년 고려대에 나타났던 14살 소년 송귀철을 조명하는 '정들이'는 13일 개봉 예정이다.

아버지의 주위 폭력을 피해 가출한 송 씨는 고대 운동권 학생을 만난 뒤, 정경대 학생회실에 기거하며 '정들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정들이는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로 인해 대학의 격랑을 경험하고, 형 누나들을 따라 6월 항쟁에도 참여한다. 1987년 12월 대선 부정개표와 구로구형 투쟁기도 필름에 실

려 있다.

끝으로 14일 개봉작 '두 사람'은 파독 간호사 수현과 호스피스 리더 인선의 사랑을 그린다. 40여 년 전 재독여신도회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설 곳이 되어주길 결심한다.

작품은 제5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에서 장편 경쟁부문 관객상, 2022년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선택상을 받았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예술세계, 역사, 로맨스를 그린 세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며 "관객들은 영화에 투사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